

'문현빈·페라자 홈런' 한화, 선두 KT 잡고 연승…왕엔청, 시즌 4승

등록 2026.05.15 21:33:28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문현빈이 1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4회 홈런을 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6.05.15.

[수원=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선두 KT 위즈를 잡고 연승을 달렸다.

한화는 1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T와의 경기에서 5-3 승리를 따냈다.

최근 3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탄 한화는 시즌 19승(21패)째를 기록했다. 반면 연패에 빠진 KT(24승 1무 15패)는 단독 선두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한화 선발 마운드에 오른 왕엔청은 5이닝 5피안타 8탈삼진 2실점을 기록,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4승(2패)째다. 아울러 이날 한화와의 6주 계약이 끝나는 잭 쿠싱은 9회 등판해 1이닝 1실점을 기록, 시즌 4세이브(1승 2패)를 가져가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리그 최다 홈런을 자랑하는 한화는 이날도 문현빈(시즌 8호)과 요나단 페라자(시즌 7호)가 각각 역전 투런포와 썬기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한화 이적 후 처음으로 수원을 찾은 강백호는 친정 팀 에이스 고영표를 상대로 3타수 무안타로 고전했다. 전용주가 등판한 8회 득점 찬스에도 땅볼로 돌아서며 아쉬움을 남겼다.

KT 선발 고영표는 7회까지 97구를 던지며 5피안타(1홈런) 3실점 호투를 펼쳤으나, 타선의 지원이 부족해 시즌 4패(1승)째를 당했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왕연청이 1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6.05.15.

선취 득점은 KT가 냈다.

2회말 허경민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선두타자 출루를 만든 KT는 2사 이후 한승택도 볼넷을 골라내며 1, 2루 밭상을 차렸다.

이때 타석엔 신인 이강민이 들어섰고, 그가 왕연청의 4구째 시속 139km 바깥쪽 포크를 노려 중전 적시타를 날리며 KT는 먼저 1점을 가져갔다.

한화도 머지않아 반격했다. 리그 홈런 1위 팀인 만큼 홈런으로 대응했다.

4회초 1사 1루에 문현빈이 고영표의 5구째 시속 137km 투심 패스트볼을 때려 우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5m 아치를 그리며 한화는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이어진 4회말 2사 2루에 이강민이 또 한 번 중전 적시타를 작렬, KT는 곧바로 2-2 균형을 맞췄다.

이어 최원준과 김상수도 왕연청의 초구를 노려 안타를 날리며 KT는 빠르게 모든 베이스를 채우고 역전까지 노렸으나, 김현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되며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위기를 넘긴 한화는 5회초 2사 2루에 나온 심우준의 적시타와 함께 다시 3-2로 달아났다.

1점 차 아슬아슬한 리드는 8회 벌어졌다.

8회초 심우준의 볼넷으로 만든 2사 3루에 페라자가 한승혁의 4구째 시속 150km 직구를 때려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3m 대형 홈런을 쏘아올렸다.

5-2로 점수 차를 벌린 한화는 후속 문현빈의 3루타로 추가 득점을 노렸으나, 후속 강백호가 투수 앞 땅볼로 돌아서며 이닝을 마쳤다.

KT는 9회말 2사 2루에 김현수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으나,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